

## 5강 벤야민의 역사개념과 이미지관

### ◆1교시: 벤야민의 전혀 다른 개념으로서의 역사

#### ▲ 들어가며

지난 시간예요. 1장하고 그 다음에 2장까지 제가 좀 얘기를 했습니다.

1장에서는 벤야민 사유의 기본 틀이 되면서 역사철학 테제의 기본 틀이 되고 있는 벤야민의 역사라고 하는 그런 전승되어 오는 전통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역사 개념을 전혀 다른 개념으로 바꿀려고 하는 게 역사철학 테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과연 역사철학 테제를 이해하려고 하는 관건이, 그렇다면 벤야민이 얘기하고 있는 히스토리가 도대체 뭐냐를 결과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역사 철학 테제를 이해하는 방식이 될 테고 또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벤야민의 섹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언어나 예술이나 특히 대도시 메트로폴리스에 대해서 얘기 할건데 결국 그런 것들이 전부 바로 벤야민이 구축하고자 하는 소위 히스토리라고 하는 개념과 일치되는 그 안에서 각자 포지션을 얻어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 ▲ “인간학적 층위” 로서의 역사

1장에서는 바로 역사철학 테제 기본틀이 되고 있는 바로 메시아니즘이라는 것과 (우리 보통 신학적 측면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사적 유물론자 유물론이라고 얘기하는 그 두 개 틀이, 벤야민이 기본적으로는 그 두 개의 사유 체계가 서로 화합될 수 없는 양극성을 (익스트림extreme이죠) 익스트림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벤야민은 익스트림들을 서로 긴장시킴으로써 그 긴장 관계에서 나오는 새로운 개념으로서의 역사를 정의 할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1장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바로 그러한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소위 근대적 역사관 그것을 보통 히스토리즘이라고 하는데 (역사주의라고 하는데) 역사주의에서 얘기하고 있는 과거라고 하는 시간대가 벤야민에서는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그런 중요한 시간적 측면을 지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히스토리즘에서는 결국 중요한 것은 미래라고 하는 시간 층위이고 바로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입지 점으로서의 현재가 있고 그 입지점으로서의 현재를 정당화 하기 위한 어떤 죽은 자료로서만 사용되고 있는 것이 과거라면 (히스토리즘에서) 벤야민은 전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현재를 규정하고 동시에 미래를 규정하는 내재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아닌 과거 속에 들어가 있다 라고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역사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워낙 과거를 다루는 것입니다) 히스토리즘에서는 역사를 다루는 것이 역사를 자료로만 다루고자 한다면 벤야민은 역사를 자료로서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어떠한 에너지로서 다루고자 하는 측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역사가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은 사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근대적 삼분법적 시간관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사유가 지배되고 있는 그런 점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역사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문장으로서는 얘기 하지만 사실 믿을 수가 없는 ( 말이라는 게 그렇죠. 믿지도 않고 사실이 아닌 것도 우린 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말에 취하게 되면 믿지도 않은 사실은 자기가 진짜로 라고 믿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것이 태어나는 것이죠.

거짓말도 자꾸 하다 보면 자기가 스스로 속지 않습니까! 진짜처럼 여겨지죠. 그죠. 나중에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자기도 모르게 됩니다. 바로 그게 말의 중독성이 있는데. ) 바로 그러한 층위에서 애길 하게 되면 벤야민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2장에서 얘기하는 그것인데 역사가 살아있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심층적인 층위가 심리적 층위가 우리에게 있다 라고 하고 있다. 그것을 본능적 층위이고 벤야민 식으로 더 정확히 얘기하면 (벤야민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인간학적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학적 층위” 벤야민은 층위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앤서로폴리컬 anthropological 하다 라고 하는데 바로 그 인간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인간의 어떤 기본 조건들 인간이기 위해서 누구나 공유하고 있는 측면들. 그러한 것들은 감각 체계라든지 사유 체계라든지 아니면 본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는 그림으로써 인간이란 누구인가 아니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학문이 인간학인데 결국은 벤야민에게 중요한 것은 인간학의 의미가 바로 그 자연 개념과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 ▲ 인간의 존재를 물어보는 인간학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간은 한편으론 이중적 관계를 지니고 있죠.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두 개 틀이 하나는 자연 틀입니다. 인간은 자연입니다. 그죠. 인간은 자연적 생산물이다. 다른 무슨 곤충이나 나무나 아니면 동. 식물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난 자연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탈자연적 존재이죠. 다시 말해서 바로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인간 세상이라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자연에 대해서 이중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에 내재적 관계를 지니면서 동시에 자연에 대해서 외재적 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바로 이 문제가 자연과 인간이라고 하는 것 아니면 자연과 문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인간학적 측면에서는 문명의 층위가 얘기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자연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만일 함께 생각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인간학적인 연구대상이다. 인간을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자연적 요소도 있고 또 탈자연적 요소도 있다.

동물들은 자연 속에서 태어나서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그대로 살다가 소멸해 버리고 말지만 인간은 자연 속에서 태어나기는 하지만 그러나 자연을 개발하거나 개척하거나 아니면 인간의 세상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의미에서 다시 말하면 인간은 본능적 존재이지만 자연적으로 태어난 본능적 존재이지만 동시에 본능과는 또 다른 제2의 세컨 인스틴트instinct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성이라는 것이다. 또는 정신이라고 하는 것 바로 정신이라고 하는 것 정신의 소재가 똑 같은 자연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동물과 인간을 나누는 결정적인 증거 점이 되고 있는 건 뭐 누구나 아시지 않습니까! 자연은 자연 속에 정신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인간은 자연성도 지니고 있으면서 동시에 정신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개를 공유하는 것이 바로 공유하는 존재로서 인간의 문제를 물어보는 학문 인간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 과거를 복원하려는 희미한 메시아적 힘

벤야민 식으로 얘기하면 제2장에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인간학적인 그런 층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나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게는 본능의 특별한 본능이 있다. 특별하다는 것은 당연히 단순한 자연적 존재로서만 소속돼 있는 자연적 존재가 아닌 그것과는 또다른 또 하나의 본능적 층위가 있는데 그것을 바로 벤야민은 소위 이미지 층위를 보고 있죠. 이미지 층위가 과거라는 것과 과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과거 이미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과거 이미지라는 것은 독특하게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미지를 통해서 벤야민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행복의 문제이죠. 인간의 본능은 인간학적 인간학 규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벤야민 식으로 얘기하면 행복 본능인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문명 과정이라고 한다면 인간을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소위 그 미래에 주어져 있는 행복의 약속인가 아니면 과거 속에 들어가 있는 놓쳐버린 행복인가 이 문제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벤야민이 과거 이미지를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독특한 본능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과거에 상실된 행복을 복원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복 추구를 하는 일종의 동물이다 라고 있죠. 그걸 통해서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과거 시간을 과거 이미지적으로 보게 되면 결코 자료화로서만 남아있고 폐기된 시간대로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생생히 살아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걸어오는 시간대로 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바로 응답 하려고 하는 본능을 지니고 있는 왜냐하면 우리는 행복하고 싶으니까...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과거 이미지를 보게 되면 우리를 실제로 주도하고 있는 것은 시간은 미래라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과거라는 시간이다라고 애길하고 있죠. 거기까지 얘기한 것이 바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어떤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현재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으로부터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은밀한 인텍스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인텍스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 시간과 혹은 과거 속에 있었던 그런 우리의 관

계 망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과 은밀한 목계를 지니고 있고 그런 목계를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하나는 힘이 감지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과거로부터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청하고 있는 어떠한 요청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적 힘이 사실 우리에게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메시아적 힘이 없다고 믿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기를 포기하겠지만 그러나 과거에 대해서 응답해야 되는 필연성을 느끼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그걸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가 주어지고 그리고 의무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의무를 실현할 수 있는 벤야민이 굉장히 유보적으로 애길하고 있습니다. 희미하다. 희미한 메시아적 힘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 그리고 과거 역시 바로 이 힘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힘을 오늘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 정의와 권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권리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권리의 문제를 여러분 정의라고 하는 (나중에 벤야민이 폭력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요.) 선거를 치렀습니다. 권리라고 하는 문제가 이게 권리 의무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투표에 권리가 있고 투표에 의무가 있다. 그러는데 사실 법철학적으로 얘기하면 권리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포기할 수 있는 것이고 행사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억지로 뺏어 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존재가 아니고 권리는 밀접하게 정의라고 하는 문제로 정의라는 문제를 많이 생각해 봤습니까.

저스티스justice라고 얘기하는 것. 정의가 뭘니까. 정의가. 정의롭다. 정의 사회가 이루어져야 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의가 뭘니까. 영어로는 저스티스지만 독일어로는 “Gerechtigkeit” 독일어가 재밌습니다. 독일어가 한자하고 비슷하게 단어를 조합하죠. 그래서 하나의 단어를 만드는데 조합어입니다. 두개의 단어를 합쳐서 굉장히 길죠.

벤야민이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Wahlverwandtschaft(친화력)” 몇 자 같습니다. 헤헤...친화력이라는 말이거든요. 피테가 쓴 유명한 소설도 있죠. 삼각관계 소설. 피테가 쓴 유명한 소설 중에 하나인데 “발테어반드샤프트”, “발wahl” 이라는 것은 선택이란 말이구요. “

테어반드샤프트verwandtschaft “란 서로 밀접성이 있다. 유사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문자하고 어떠한 문자는 계속 서로 라 붙으려고 그러죠. 어떤 것은 죽어도 달라붙지 않으려고. 바로 그것을 친화력이라고 부르는 거죠, 어떠한 문자와 어떤 문자는 서로 달라붙으려고 하는 것 그 힘, 그 힘을 친화력이라고 부르는데. 독일어로는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두 단어가 조합되어있는 것처럼 독일어에서 Gerechtigkeit 정의를 얘기 하는데, 독일어 강의를 하는 건 아니구요. Recht레이트라고 하는 것이 권리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권리와 권리 관계. 권리

와 권리 사이에 관계를 얘기해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나의 권리와 타자의 권리가 어떻게 상호 존중되느냐 그게 바로 정의죠. 다른 게 아니고. 내 권리를 행사할 때 바로 타자의 권리를 내가 용인하는 그런 어떤 행위. 그걸 정의로운 행위 라고 하는 데요. 바로 권리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면 벤야민이 중요한 사유 중에 권리 정의 그리고 소위 폭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 ▲ 폭력의 역사로서 인간사

벤야민이 역사를 폭력의 역사로 보고 있는데 결국 벤야민이 역사주의적 역사라고 하지만 나중에 승리자의 역사라고 규정하는데 승리자의 역사는 바로 폭력의 역사죠. 억압의 역사죠. 바로 폭력의 문제. 그래서 소위 성경에 보게 되면 죄라는 말이 있잖습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 말 때문에 대단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기도 할텐데. 지하철 같은데 죄 짓지 말아라.

바로 죄와 구원의 문제. 이게 바로 성경 틀이죠. 죄와 구원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신과 그리고 인간 사이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벤야민의 신학적 사유의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벤야민이 죄의 관계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벤야민은 역사라고 하는 것을 죄가 계속 치유되지 않는 체로 계속 반복되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억압이 그 다음 시대에 가면 해소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바로 역사의 목적인데 역사가 발전하는 것이라면 벤야민이 볼 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죄의 반복일 뿐이다. 역사가 그 폭력의 역사가 되어버리면 그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폭력에 의해서 대체되고 그 것이 다시 또 다른 폭력으로 대체되는 그런 죄가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이 신학의 틀이라면. 죄는 인간사는 죄가 구원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죄가 계속 죄를 재생산 하는 관계다. 이게 바로 벤야민이 보고 있는 소위 인간사다. 그래서 성경 틀에 맞춰서 얘기하는데 그 관계에서 무엇이 죄를 만드는 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의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과연 타자의 권리를 내가 인정하는 가 만일 그렇게 된다면 죄가 구원의 관계로 바뀔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인간사회 모델에 있어서는 한상 권리라고 하는 것은 나의 권리가 주장되고 타자의 권리는 삭감되는 그러한 관계로 이어지게 됐고 그 관계에서 태어나고 있는 것이 어쩔 수 없이 폭력이 태어나게 됐다. 왜냐하면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인정 당하지 않은 채 그것이 뭐라고 그럴까. 억압적으로 훼손당한 사람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권리를 찾으려고 하죠. 그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그러나 바로 저쪽에서 권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 폭력이 되죠. 권리를 찾는 행위가 폭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권리를 되찾으면 그 폭력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의 다음 세대는 다음 아님 뭘니까. 자기 권리를 또 찾으려고 하죠. 그 쪽에서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또 폭력을 행사해야 됩니다. 바로 이 문명사는 끊임없이 정의를 요구하지만 그러나 그 반복은 폭력의 재생산이다. 이게 바로 벤야민이 보고 있는 죄의 연관관계로서 아니면 죄의

재생산 관계로서 바로 인간사를 보고 있는 측면이거든요.

사실 이게 경제 문제로 건너오게 되면 그게 정당화 되죠. 내가 좋게 얘기하면 얼마 투자해서 얼마 잉여가치를 얻어내지만 바로 그 관계에서 과연 정당한 교환이라는 게 과연 가능한가 라고 하는 겁니다. 정당한 교환이라는 게 가능한가....

## ◆2교시: 진정한 역사가의 힘

### ▲ 정의로운 역사로 복원

시장에는 꿈이 있죠. 시장은 정당한 교환을 통해서 바로 그 정당한 시장의 정의를 통해서 각자 자기가 얻어낼 권리 분을 찾아오면 시장은 정당한 겁니다. 교환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구요. 그러나 시장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렇게 움직이지 않죠. 바로 정의가 항상 배반당하는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바로 자본주의 구조이고 그래서 벤야민은 자본주의 시장 구조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죄의 관계에 뭐 이런 것들도 동시에 사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정의 문제로 얘기하고 대단히 복잡해요.

결국은 벤야민 식으로 의하면 끊임없는 폭력의 경제적 폭력이든 정치적 폭력이든 윤리적 폭력이든 도덕적 폭력이든 자오지 간 끊임없이 폭력이 재생산 될 수 밖에 없는 구조 그게 바로 역사라고 하는 것이고 그 역사를 정당화하려는 것이 바로 역사주의적 역사주의고 그 역사를 폭파시켜서 바로 정의로운 역사로 복원하려고. 복원이라는 말이 “restitution” 라고 하는 복원이라는 말이 벤야민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복원하려는 것이 벤야민이 새로운 역사개념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의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2장까지 과거 이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 ▲ 이미지와 시간의 문제

3장부터 우리가 한번 들어가서 사실은 이게 제가 그 나눠드린 페이지를 보게 되면 클레 그림이 나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클레 부분이 9장인데요. 9장전까지는 이 역사철학 테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9장까지가, 9장 이전까지가 한 섹션이고 9장부터는 또 다른 섹션이 됩니다. 두 개의 섹션. 근데 9장까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벤야민이 과거 이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미지를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 9장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꼼꼼하게 말씀 드렸던 시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철학 테제를 사실은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이미지와 시간. 들뢰즈도 그

런 말을 했지만 조금 다른 틀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미지에 시간성에 문제로 일관해도 사실은 유효해요.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뭘니까. 고정된 것이라서 사실은 무시간적인 것이지요. 시간을 세우는 게 이미지죠. 특히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진 이미지 같은 것은 움직이는 것을 잡아끌어 가지고 고정시켜 놓은 게 사진 이미지라고 알고 있죠.

이미지는 원래 본래 의미가 시간을 정지시켜 놓은 것인데 바로 그 이미지가 시간과 만나는 것이라면 이미지 어떤 특성들 때문일까 이런 것들을 연구해 볼 때 반드시 역사적 시간의 문제로만 따지지 말고도 벤야민이 도대체 이미지와 시간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이걸 읽어도 다른 식으로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읽어낼 수도 있거든요. 바로 9장부터는 소위 시간의 문제를 얘기하고 특히 모던이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해야 되는데 어쨌든 빨리빨리 진행해 봅시다. 길게 얘기하면서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시간이 그렇지 못해서 말이죠. 3장을 보죠.

#### ▲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해야 하는 역사 기술

사건의 크고 작음을 구별함이 없이 모든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연대기 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진실. 즉 이 지상에 언젠가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도 빠짐없이 역사에서 주목되어야 한다는 진실에 공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것은 잘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근데 클로니니스트chronicler가 뭘니까. 연대기 기술자죠. 과거 사실들을 꼼꼼하게 기술하는 것. 우리 사관들처럼. 그걸 얘기하는데 벤야민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연대기적 연대기를 쓰는 사람들은 하나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모든 것을 다 기록하기. 말하자면 빼놓지 않기. 벤야민이 특수한 기억 개념하고도 나중에 만나게 됩니다.

벤야민의 기억이란 무엇인가. 기억은 과거 사실들을 전부 기억하는 거예요. 결코 선별적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요. 그러나 우리가 그 헤겔학적이든 아니면 프로이트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기억은 언제나 선별적입니다. 기억행위라고 현재 유효한 것들을 기억하지만 유효하지 않은 것들은 방어적으로 몰아내고 있는 것이 기억 행위인데 벤야민이 여기서 주장하고 싶어하는 그런 기억이라는 것은 무엇이나 하면 있는 사실들을 전부 불러들이는 행위 그게 바로 사실 역사적 기술자가 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덕목이다. 이렇게 얘길 하고 있습니다.

#### ▲ 진정한 역사 기술자는 메시아적 관점을 가지고 기술해야 한다.

물론 과거가 완벽하게 기록될 수 있는 것은 인류가 구원되고 난 연후이다. 다시 말해 구원된 인류만이 그들의 과거의 하나하나를 남김없이 인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시 되살아나는 과거의 한순간 한 순간은 그 날. 즉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의 日程表의 인용문이

될 것이다.

이 얘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 드렸던 거와 똑같습니다. 바로 그 메시아적 그런 그 이 말은 3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말은 진정한 역사 기술자는 사실 메시아적 관점을 가지고 기술 해야 한다. 왜. 메시아적 관점을 지닌다고 하는 것은 최후의 심판이 올 때까지는 모든 사실들이 잠재적으로 다 유효하기 때문에 하나도 빠뜨릴 게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연대 기술자는 어떠한 것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라는 이유는 선별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모조리 다 기억해내고 기록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나 여기서 볼 때 그러나 이게 벤야민의 변증법적 사유인데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연대 기술자는.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사유체계나 우리의 어떠한 역사관 자체가 선별적으로 이미 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기억한다고 해도 바로 전부 기억한다는 이름으로 빠져 나가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하나의 이념이지만 전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은 이념이지만 그 이념의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모든 것들이 다 기억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최후의 심판 시기. 그 때가 와야지만 또 가능할 것이다. 말하자면 요청은 있지만 그 가능성은 이게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시기 도 돼야지만 가능하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양가적입니다. 그니까 내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다 기억을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기억하는 가능성은 그 목적이 실현되었을 때만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이 얘기에요. 즉 가능성과 불가능성의 변증법이죠. 이게 나중에 벤야민의 이제 독일 비극의, 저게 뭐야. 기원에 가게 되면 바로 이 플라톤의 이데아 하고 그 다음에 현상과 이념이라는 말로 서로 얘기가 되고 있는 아주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 하고 사실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슨 꿈을 갖고 있죠. 그래서 꿈을 실현하자면 조건이 있죠. 그죠. 그 조건들을 우리가 실현하려고 하지만 그 조건들을 실현하려면 그 꿈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바로 이게 어려운 점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바로 벤야민이 꿈의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넘어 갑시다. 좌우지간 사유방식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 ▲ 물질관계를 전복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계급투쟁

우리 4번으로 건너가게 되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마르크스에 의해 훈련을 받은 역사가가 항상 염두 해 두고 있는 계급투쟁은 조야하고 물질적인 것들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싸움이다. 이러한 싸움 없이는 고상하고 정신적인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상하고 정신적인 것들은 계급투쟁 속에서 승리자의 손에 굴러 떨어진 전리품의 이미지와는 다른 양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뢰, 용기, 유머, 기지, 불굴성으로서 이러한 투쟁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고 또 지나가버린 머나먼 과거의 시간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덕목들은 지배자에게 굴러 떨어진 일체의 승리에 언제나 새로이 의문을 제시할 것이다.

마치 꽃들이 해를 향하듯. 과거 또한 알 수 없는 종류의 신비스러운 向日怯에 힘입어 바야흐르 역사의 하늘에 떠오르는 바로 그 해를 향하려고 하고 있다. 역사적 유물론자는 모름지기 모든 변화들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이러한 사소한 변화에 정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무지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유물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물론에 대해서 소위 유물론자들은 다시 말하자면 커뮤니즘, 막시스트는 물질 투쟁을 하죠. 물질 투쟁을 하죠. 그니까 물질관계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 혁명의 목적 아닙니까. 즉 노동자가 생산을 한 그러한 그 재료들이 있는데 상품들 물건들이 있는데. 문제는 유물론적으로 보게 되면 역사의 모순은 바로 그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모순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생산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노동이든 육체적 노동이든 아니면 육체적 노동이 발전된 기술적 노동력이든 그걸 사용해서 생산되고 있는 생산량들을 애길 하고 있죠. 베이스라고 합니다. 생산량들이 있죠. 이걸 우리는 생산력이라고 합니다. 생산력 그 다음에 또 두 개 하나 항은 소위 생산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생산관계는 더 정확히 얘기하면 분배 관계입니다. 분배관계. 그래서 이것은 하부구조다. 이것은 상부구조다. 맑시즘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억압관계라고 하는 상부구조와 하부구조 사이에 모순관계 때문에 태어난다. 모순관계는 다름이 아니고 생산량들이 끊임없이 잘못 분배되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보게 되면 생산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분배에 맡김드린 권리를 늘 빼앗기고 있다는 거죠. 빼앗기게 하는 것이 뭐냐면 잉여가치라는 거다.

즉 지배구조 그니까 기득권 층들은 아니면 그런 부르주아들은 이 노동자들로부터 끊임없이 노동자들이 자기가 생산해서 얻어낼 수 있는 당연한 경제적 권리를 잉여가치를 탈취해내고 이 잉여가치를 빼앗아서 부자가 된다는 단순 논리지만, 어쨌든 간에 맑시즘으로 얘기하자면 부자가 왜 부자가 되느냐 맑시즘에서 당연한 겁니다.

잉여가치를 빼앗아가고 법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정당한 권리를 프롤레타리아로부터 탈취해가기 때문에 즉 정의롭지 않기 때문이죠. 정의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경제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초기 유물론자들이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이 물질관계를 바꿔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걸 전복시켜야 한다. 이 물질 생산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그런 생산자들에게 되돌려야 된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계급 투쟁이고 그리고 계급투쟁은 물질관계를 전복을 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애길 하죠.

### ▲ 정신성과 물질관계

그러면서 벤야민이 비판하고 있는 유물론자들의 충위가 뭐냐 하면 유물론자들은 그러나 정신적인 그런 정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관계만 바꿔 놓으면 저절로 따라오는 걸로 생각했다. 이 애깁니다. 그게 잘못됐다 지금 보는 거죠.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정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관계를 바꿔 놓으면 저절로 따라오는 전리품 같은 게 아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길 보면 고상하고 정신적인 것들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로 고상하고 정신적인 것들이다. 말하자면 계급의식이나 아니면 그런 혁명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텐데 어떻습니까. 억압 받는 자들에게 물질관계를 바꿔주면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관계를 바꿔주면 가난한 사람들이 정신적인 존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가난해서 교육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교육 받을 수 있는 물질적 그런 관계를 회복해주면 그들 사이에서 그들이 어떤 교양적 존재로 바뀔 것 같습니까. 안 바뀔 것 같습니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만일 우리 사회에다 예컨대 양극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리고 아이들을 공부 가리키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들에게 물질적인 그런 왜냐하면 교육을 못 받거나 그런 것들이 하는 것들이 물질성 때문에 가난 때문에 못 받는 부자를 만들어주면 그들이 정말 여기 벤야민이 얘기하듯 고상하고 정신적인 것들을 소유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벤야민이 얘기하듯이 그것과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초기 유물론자들은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물질관계를 바꿔주면 바로 계급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벤야민이 볼 때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 고상하고 정신적인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애길하면서 바로 고상하고 정신적인 것들은 바로 투쟁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여 나가는 것이다. 라고하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벤야민은 물질적인 변화운동과 정신적인 변화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꿰놓고 생각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엇이 우위 관계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바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니까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를 다시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덕목들 즉 정신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자에게 굴러 떨어진 일체의 승리에 언제나 의문을 제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정신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교양적이고 많이 배워서 지식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지배계급들의 승리에 대해서 언제나 저항하게 하는 어떤 힘이다. 라고 애길 하고 있습니다.

### ▲ 역사의 항일성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벤야민에게는 그게 바로 역사의 힘인데 그 말을 이렇게 애길 하고 있어요. 마치 꽃들이 해를 향한다. 여러분. 향일성이라는 말을 알고 있죠. “향일성 Heliotropism”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식물들은 어떻게 되죠.

해바리기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해를 따라서 그 쪽으로 돌아서게 돼있죠. 그래서 살아 있는 것들은 전부 해를 향해서 돌아서게 돼 있다. 그런 성격이 있다. 향일성이라고 애길 합니다. 역사에도향일성이 있다. 이렇게 애길 하고 있어요. 바로 이 향일성의 성격. 역사의 그런 해를 향해서 움직여 나가는 힘. 이게 바로 정신적 고상성이예요. 고상한 정신성이예요. 벤야민이 보고 있는 이런 것은 물질관계 바뀌진다고 그냥 따라온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꽃과 똑같다.

그것도 역시 해를 따라간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해를 따라 가는데 과거 또한 바로 꽃들이 해를 따라가듯이 과거 또한 알 수 없는 종류의 신비로운 향일성을 힘입어서 이런 앞에서 얘기한거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는 죽은 시간이 아니라 움직이고 있는 시간이다. 움직이는데 방향성이 있다. 뭘 방향성이 있느냐 해를 향해서 바로 뭔가를 요청하고 있는 향일성적 요청을 가지고 있는 시간대. 과거라는 거예요. 꽃처럼. 해를 향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과거 또한 알 수 없는 향일성에 힘입어서 바로 바야흐르 역사의 하늘에서 떠오르는 그 해를 향하라고 했다. 이게 바로 벤야민이 현재 과거 미래라는 것을 향일성의 이름으로 얘기하는데 과거는 하나의 꽃과 같은 것이다. 꽃이라고 하는 것은 향일성이 있기 때문에 해를 따라서 돌아서려고 하는 힘이 있다. 그겁니다. 바로 해는 저기 멀리 저기 멀리 역사의 저편에서 떠오르고 있는 해가 있다.

과거의 시간은 이 해를 따라서 움직이도록 움직이려고 하는 운동성이 있는데 그러나 이 해가 따라가려고 하는 .꽃이 따라가려고. 역사라는 꽃이 따라가려고. 과거라고 하는 꽃이 따라가려고. 하는 해는 당연히 미리 주어져 있는 해가 아니라 항상 동쪽에서 뜨고 있는 해가 아니라 다름아닌 현재라고 하는 지금 이 시간대가 과거가 요청하고 있는 소리를 들으면서 바로 지정하게 되는 어떤 미래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무슨 얘기냐 먼 과거는 해를 향해서 향일성을 보여주지만 이 향일성은 동시에 향일성을 불러일으키는 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현재가 과거를 바로 읽어낼 때에만 떠오르게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과거는 해를 향해서 향일성을 갖지만 해는 과거에 의해서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이걸 매개 하는 것이 뭡니까. 현재 시간이에요. 그래서 해를 지향하는 꽃들의 운동과 바로 그 꽃들의 운동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해가 떠오르고 있는 것은 동시적이에요. 해가 떠오르기 때문에 향일성이 생기고 향일성이 생기기 때문에 해가 떠오르죠. 이겁니다.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3교시: 벤야민이 얘기하는 과거의 의미

▲진정한 혁명을 가져올 수 있는 역사의 정신

바로 이게 벤야민이 가지고 있는 나중에 가면 더 무슨 지금 이 시간 이라는 말로 얘기가 되겠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삼분법적으로 나누어져있는 이 시간대가 동시적인 어떤 시간대로 변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지금 “더 히어 앤 나우” 개념으로 나중에 설명이 되는데 바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동시적인가 그게 역사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벤야민에게 그게 역사예요. 그래서 바로 미래의 해는 과거의 요청에 의해 떠오르고 과거 요청은 바로미래라고 하는 해가 떠오르기 때문에 요청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바로 그거. 그게 바로 진정한 혁명을 가져올 수 있는 정신적인 역사의 정신성인데 이 역사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관계 바뀌준다고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 지금 벤야민이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4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이 과거의 의미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 하고 있어요.

▲ 과거의 진정한 이미지는 늘 놓치게 돼 있다.

그 다음에 5번에 들어가면

과거의 진정한 像은 획 스쳐 지나가 버린다. 과거의 진정한 상.

과거의 진정한 이미지는 획 스쳐 지나가 버린다. 호바이 호슈한다. "verbei - huscher " 이 바람 같은 것들이 슬쩍 지나가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뭐가 슬쩍 지나간다는 말이 사실은 어째가 있습니다. 어째가 있는데. 스쳐 지나간다는 말이 어째가 있습니다. 시간적 어째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나가야지 지난 간 것을 아는 게 바로 슬쩍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갈 때 모르는 우리가 그 사실을 슬쩍 지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과거 사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게 지나갈 때는 모르는데 지나갔을 때 아 우리가 뭐가 슬쩍 지나갔어. 행복도 마찬가지죠. 나 행복해. 이게 거짓말이에요. 행복은 완전히 전폭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가 없어지는 것이 바로 행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에 대해서 늘 과거형으로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때 참 행복했어 나 지금. 여자들 그런 말 잘하죠. 나 너무너무 행복해. 자기야. 뭐 이렇게 얘기하죠.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기가 아직 남아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복을 만일 굉장히 토탈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유보가 없는 상태로 생각한다면 어떤 엑스타제 관계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행복은 언제나 현재형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과거형으로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어쨌든 간에 자오지 간 뭐가 스쳐지나 간다. 빨리 스쳐 지나간다 라고 하는 말도 스쳐 지나간다. 이진 사실 거짓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스쳐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면요.

나도 모르게 이미 지나가서 내가 비로소 회고할 때 비로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일어에서 호바이 호슈한다 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진정한 투루 이미지는 그냥 이미지가 아니라 투루 이미지는 언제나 스쳐 지나간다. 즉 이 말을 통해서 뭘니까. 늘 놓치게 돼있다. 늘 놓치게 돼 있다. 하는 뜻 이예요. 늘 놓치게 돼있다.

▲ 역사가는 지나가는 순간을 포착하는 거다.

다만 우리는 그것이 인식되어지는 찰나에 영원히 되돌아올 수 없어 다시 사라져버리는 (바로 그 말을 하고 있죠) 마치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상으로서만 과거를 붙잡을 수 있을 뿐이다.

그게 바로 이미지입니다. 그죠. 이미지로만 저걸 붙잡을 수 있다. 현실이 아니라 이미지로만 붙잡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는 우리들로부터 달아나 버리지 않을 것이다>

-고트프리트 켈러에서 연원하는 바로 이 말은 역사적 유물론을 관통하는  
역사의 이미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왜냐하면 현재에 의해 인식되지  
못했던 모든 과거의 상은 언제든지 현재와 함께 영원히 사라져버릴 위험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고트프리트 켈러는 18C 독일 작갑니다. 독일 소설가인데 고트프리트 켈러에서 연원하는 이  
말은 제가 볼 때는 이 방성환 선생님이 이 번역을 좀 제가 볼 때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 -  
역사적 유물론을 관통하는 역사의 이미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니고 왜 이렇게 번역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다른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 왜냐하면 현재 인식되지 못했던 모든 과거의 상은 언제든지 현재와 함께 영원히 사  
라져버릴 위험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벤야민이 과거의 진정한 상이라고 하는 것은 획 스쳐 지나가 버린다. 다시 말하자면 놓  
치게 끔 되어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역사가가 진정한 의무는 뭐냐 하면 바로 그걸  
불잡는 거다. 이렇게 애길 합니다. 그걸 불잡는 거다. 지나간 것을. 그 말이 나중에 벤야민  
식으로 얘기하면 메시아는 맨 날 맨 날 오고 있고 매초 매 초 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불  
잡지 못하기 때문에 맨 날 메시아가 안 왔다고 기다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 얘기로 마찬가지로 수시로 획 획 지나가지만, 우리는 그러나 그것을 언제나  
과거형으로만 이미지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불잡을 수가 없다 이렇게 애길 하죠.  
그러나 진정한 역사가가 바로 해야 할 일은 의무는 뭐냐 하면 이 순간을 지나가는 순간을  
포착하는 거다. 불잡는 거다 이렇게 애길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  
은 결코 달아나지 않는다. 고트프리트 켈러 말은 맞다 그 애깁니다. 다만 우리가 뭘니까. 불  
잡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지금 그 얘기죠.

#### ▲ 과거 이미지를 놓치게 하는 삼분법적 시간

그 얘기하면서 왜냐하면 바로 이 시대의 모든 과거의 상은 언제든지 현재와 함께 영원히 사  
라져버릴 위험에 처해있다. “ 위험 ” 벤야민은 호바이 호슈 하는 것. 우리가 불잡아야 하는  
과거 이미지를 늘 놓쳐버리는 것을, 그것이 너무 빠르기도 하지만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  
러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애길 합니다. 우리가 어떤 위험한 상황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걸 놓  
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무슨 얘기냐 면 그건 무슨 얘기냐 면 바로 삼분법적 시간에 의하면 우리는 삼분법적  
시간의 구조 안에서 살고 있는데 삼분법적 시간은 뭘니까. 과거를 끊임없이 폐기시키는 시  
간에요. 죽은 걸로 만들어버리는 시간에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으로 획 지나가는  
과거 이미지를 못 잡는 이유는 그것이 너무 빠르기도 하지만 이걸 인식의 문제와 애길 하고  
있습니다. 시간 인식의 문제다. 우리는 과거라고 하는 것을 죽었다고 나타나자마자 죽었다  
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불잡을 수 없다는 것이죠.

즉 우리로 하여금 스쳐 지나가고 있는 과거 이미지를 못 불잡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위

험한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위험한 시간 끊임없이 그 순간을 삼분법적 과거 의식에 대해서 폐기시키도록 본능화 돼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 의식에 대해서 애길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매번 매 번 지나가지만 우리가 그걸 못 붙잡는 이유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라기 보다는 벤야민은 사실 그걸 애길 하려고 하는 거다. 능력이 없어서 라기 보다 우리가 뭔가에 목매 하기 때문이다. 뭔가에 목매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삼분법적 시간에 목매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삼분법적 시간대를 보게 되면 과거라는 것은 늘 폐기하도록 되어있는 바로 그런 그 사건이고 그래서 그 사건이 아무리 우리 앞을 지나가도 우리는 그 과거의 삼분법적 시간의 눈으로 바로 그것은 죽은 시간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한은 아무리 살아있는 것이 우리 앞으로 지나가도 우리는 늘 그것을 뭘 로만 받아들입니까. 죽어있는 것으로만 받아들이게 돼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것이 뭐냐. 소위 근대적 시간 관이다. 즉 시간 이데올로기이다. 그 이데올로기가 바로 우리에게서 위협이다. 이렇게 애길 하고 있어요. 그 위협에 우리가 처해있는 한 우리는 매번 매 번 지나가고 있는 그 과거 이미지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과거 이미지를 우리가 포착해내지 못한다 라고 하고 애길 하고 있습니다.

번역이 잘못 돼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역사가가 해야 되는 것은 다름아닌 벤야민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미지화를 시켜야 되는데요. 자- 살아있는 과거가 획 지나간다. 우리 눈 앞으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고 내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 눈앞으로 획 지나가는데 획 지나가는 것은 지나가는 것은 동시에 뭘니까. 다시 죽은 과거 시간으로 획 다시 되돌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과거 이미지가 지나가는 시간이죠. 내 앞을 지나가지만. 나의 삼분법적인 시간이 이해하는 방식은 이 지나가는 것을 다시 과거로 죽은 시간으로 획 되돌리는 시간이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포착을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 ▲ “POINT OF TIME”

그런데 이게 지나가면서 획 다시 돌아서는 어떤 지점이 있다. 이겁니다. 어떤 지점이 있어요. 인식의 어떤 포인트가 있다. 우리가 인식이 잘못 되는 포인트가 있다. 우리 앞으로 지나가는데 그것을 다시 지나가는 그 순간을 다시 이쪽으로 되돌리고 있는 이 꺾이는 지점. 반전의 지점이 있다. 인식의 지점인데.인식의 지점인데. 우리 인식은 항상 뭘니까. 잘못되게 돼있다. 왜냐하면 인식하면 그게 바로 저쪽으로 다시 돌아서게 돼 있으니까. 벤야민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역사를 기술하는 순간이 있는데 역사를 기술하는 어떤 순간이 이게 바로 돌아서는 이 지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순간이라는 거죠. 이 지점이다. 이 지점을 포착해야 된다. 그리고 이 지점을 바로 깨고 들어가기. 이 점을 바로 그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기 이 지점을 통해서 그 안으로 투입되기. 그러한 특별한 장소가 있다.

시간 속에는 과거 이미지와 현재 시간 속에 관계는 특별한 포인트가 있는데 한 포인트가 있는데 “point of time” 어떤 포인트가있는데 이 포인트를 포착하기. 다시 말하지만 지나가는 꼭 붙들기 다시 이 쪽으로 못 가게 하기 그게 역사 기술이다.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역사 기

술이다. 바로 이 포인트를 통해서 뛰쳐 들어가기 그게 바로 역사기술의 순간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번역하셨는지 모르겠어. 방정환 선생님께서. 여길 보면 역사적 유물론을 관통하는 역사의 이미지를 단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전혀 안 되 있어요. 바로 역사 속에는 특별한 하나의 장소가 하나 있는데 그 장소를 독일 말로 도르슐라겐 깨고 들어가는 것이 역사가 임무다. 분명히 독일어로 나타나 있는데 왜 이렇게 번역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제 식으로 얘기하면 바로 이런 지점입니다. 우리가 바로 실패하는 어떤 지점에서 정지하기 그거죠. 그 순간에 바로 과거이미지를 꼭 붙들고 그 과거 이미지를 기록하기.

이게 바로 이제 벤야민이 얘기하려고 하는 과거의 진정한 상은 획 지나간다. 왜 획 지나가는지 그 말의 뜻과 그리고 획 지나가는 것을 어떻게 정지시키는 건지 그리고 그 뜻과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불가능한지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 시키려고 하는 것이 5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5장의 문제가 그것이 바로 과거의 상을 언제든 지 현재와 함께 영원히 사라져버린 위험에 직면해 있다. 그게 지금 현상황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울리벨이 얘기하는 것처럼 위험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실패할 수 밖에 없는 그 지점을 지금 역사적 상황을 애길 하고 있습니다.

#### ▲ 기억을 붙잡는 행위 “아인게덴켄”

그래서 6번에 보게 되면

지나간 과거의 것을 역사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그것이 도대체 어떠했던 가를> 인식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즉, 과거에 어떠한 사실들이 어떠했는가 조선시대 때 무슨 일이 일어 났는가 조선시대 때 무슨 반정이 일어났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다 역사를 기술한다는 것은 어떤 위험한 순간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과 같은 어떤 기억을 붙잡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제가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바로 붙잡는 행위를 이것을 딱 붙잡는 행위를 벤야민은 기억이라는 말로 나중에 설명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벤야민의 기억은 특별한데 있다고 제가 말씀 드렸는데 바로 아인게덴켄이다. 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를 써서 “Eingedenken” 영어에도 불어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독일어 특유의 단어인데 바로 아인게덴켄 이라는 특별한 단어를 써서 기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은 이 텍스트에서는 전부 거의 전부 아인게덴켄 이라는 말 을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죠. 어떤 기억을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어떤 기억을 붙잡아서 자기 것으로 꼭 붙들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 ▲ 위험한 전통에 매몰 돼 있는 수용자들



역사적 유물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위험의 순간에 역사적 주체에 예기치 못없이 나타나는 과거의 이미지를 꼭 붙잡는 것이다. 위험은 전통의 내용 뿐만 아니라 전통의 수용자에게도 닥쳐온다.

다시 말하자면 그 전통이라고 가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자들이 성취해 놓은 자기들의 자료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 전통을 잘못 알게 되는 것은 그런 내용 때문에 잘못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바로 그 전통의 문제를 받아들이는 수용자 층에서도 이미 그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전통의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을 다루는 시간적 방식이거든요. 우리는 시간적 방식에 똑같이 매몰 돼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이미 진정한 내용을 폐기시키도록 돼 있다는 것이죠.

#### ▲ 빼앗긴 역사의 상속권을 되찾기

이 양자는 하나같이 동일한 위험. 즉, 지배계급의 도구로 이용될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기든 바야흐르 전통을 압도하려는 타협주의로부터 언제나 새로이전통을 세워서 빼앗으려는 시도가 행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목적이예요. 벤야민에게 전통은 바로 우리로부터 빼앗아가려고 하는 타협지 컴포니즘 그니까 그 보수주의자들 타협주의자들 수능주의자들이 지배계급과 합류하면 타협하면서 지배계급의 논리를 그대로 재생산하려고 하는 어떤 역사주의자들. 이걸 컴포니스트라고 하죠. 우리들 보수주의자들이라기 보다는 타협주의자들 순응주의자들인데 바로 컴포니스트들로부터 바로 전통을 빼앗는 게 역사가의 힘이다.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전통 문제 얘기하면서 트레이디션이라고 하는 것은 벤야민이 더 정확한 말로 우리가 애길 하게 되면 상속권이라고 제가 애길 했습니다. 그니까 지배 사라고 하는 것은 그 상속권을 빼앗아간 역사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거지왕자 애길 하면서 잠깐 말씀 드렸는데 그것처럼 바로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위험을 빠뜨리는 어떤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이 왜 위험 하나 면 우리가 당연하게 되찾아야 하는 상속권을 계속 빼앗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어떤 의미나 면 정당한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적자권을 다른 사람이자기가 적자라고 그러면서 빼앗아가고 있는 일종의 반정의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러한 시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애길 하죠. 그래서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새로이 전통을 빼앗는 임무가 우리에게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빼앗는다면 나쁜 말처럼 들리지만 다시 말하자면 빼앗긴 상속권을 역사의 상속권을 되찾아 와야 한다. 지금 애길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애길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 과거의 희망의 불꽃을 점화 할 수 있는 사람

메시아는 구원자로서 이 오는 것이 아니다. 그는 반그리스도의 극복자로서도 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다려서 다가오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메시아는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오려고 하는 메시아를 못 오게 하고 있는 안티크리스트들. 즉 적들을 우리가 적들과 싸워서 이길 때야만 올 수 있는 어떤 존재다 라고 애길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역사적 행위를 애길 하고 있어요. 과거로부터 희망의 불꽃은 점화할 수 있는 재능이 주어진 사람은 그렇죠. 과거의 희망의 불꽃을 점화할 수 있는 재능이 주어진 사람. 벤야민 식으로 얘기하면 과거 속에는 끊임없이 현재 속으로 뛰어 들어 오려고 하는 굉장한 그런 폭발력을 지닌 뇌관이 있는데, 즉 아직 불 붙지 않은 어떤 심지가 있는데, 그 심지에다가 불을 붙이는 사람. 과거의 희망을 불을 붙이는 사람입니다.

#### ▲ 죽은 사람도 안전하지 못하다.

과거로부터 희망의 불꽃을 점화할 수 있는 재능이 주어진 사람은 오로지, 죽은 사람들 까지도 적으로부터 안전하지는 못하리라는 것을 투철하게 인식하고 있는 특정한 역사가 뿐인 것이다. 그런데 이들 적은 승리를 거듭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뭐라고 그럴까요. 통분케 하는 그런 단언입니다. 적들은 지금도 계속 승리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모순관계는 계속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벤야민은 아주 레디칼 한 점은 뭐냐 하면 적들이 승리하게 되면 우리만 고통 받는 게 아니다. 죽은 사람도 안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애길 합니다. 저는 굉장히 레디칼한 얘기이고 그리고 제가 언젠가 한 번 우리 철학 아카데미에서 아가포럼이라고 하는 발표가 있는데 그때 제 순서가 돌아오면 바로 이 문장 갖고 발표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도 안전하지 못하다. 여러분들은 죽은 자들도 안전하지 못하다. 라는 말은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죽은 자들이 무슨 죽었는데 안전하고 안 안전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도 안전하지 못하다 이 말은 죽은 자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만일 나의 적이 적을 내가 싸워서 이겨내지 못하면 내 아이들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싸우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나는 괜찮은데 나는 "I" 참은데 내 아이까지도 나중에 안전하지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아마 이걸 싸워야 되는 일이다. 그런 부모 된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러한 싸우려는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생길 텐데 벤야민은 바로 나의 아이들이라는 말은 죽은 사람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4교시: 기록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 살아있는 시간대로서 죽은 사람

죽은 사람들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말하자면 굉장히 재촉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일단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 없는 거죠. 우리가 결코 안전의 대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대상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어떤 시간을 바로 지켜야 되는 시간으로 지금 애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죽은 사람이라고 애길 하지만 그 사람들이 계속 고통을 당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려내야 되겠다고 애길 하고 있어요.우리 한 번을 생각해봅시다. 우린 5.18이라고 저를 뭐 정치컬한 사람은 아닌데 예를 들면 광주사태 우리가 생각을 한 번 되돌려보시면 직접적인 관계에서 고통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냥 신문지상으로만 이렇게 알고 있을 수도. 5.18뿐이겠습니까.

6.25도 있을 수도. 아니면 여수 반란 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제주도 4.3 반란도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역사 속에 억울하게 죽어야 했던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있겠죠. 벤야민이 얘기하듯이 부지기수로 있을 겁니다. 우리가 과연 그들 다 죽였어요. 죽였습니다.지금 그들은 다 무덤에 묻혀있고 그리고 5.18이 오게 되면 가서 경배도 하고 영화도 나오고 5.18 영화. 화려한 외출. 영화도 나오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것 같이 벤야민의 그거에 따르면 그 모든 것들이 일단 단 하나의 전제에서 공유된 전제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죽은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은 사람들은 더 이상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미 죽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서 경배도 하고 그리고 기억도 하고 그리고 영화도 만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고통에 민감한 시선이나 고통에 만일 그 당시 정말 애지중지하고 했던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그 잃은 어떤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그 때 그 당시가 살아있는 시간일 겁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직접적인 고통의 그런 민감성이 그 사람에게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리고 죽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겠죠. 그 사람들에게는 과거 시간대는 지나가서 폐기되고 기억에 대상으로만 남아있는 시간이 절대 아닐 겁니다. 면면히 그 죽어가는 사람이 고통이나 아니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의 억울함이나 죽어가는 사람들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살아있는 그런 시간 대일거예요.

#### ▲ 개인의 고통에 민감 할 수 있는 역사의식

문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러한 어떤 그런 가진 연대 관계를 가진 사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역사의식에 의해서 바로 역사의식은 다른 게 아니라 그 개인의 고통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나 민감할 수 있는가 그게 문젠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민감도가 과거를 살아있는 시간으로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과거를 그냥 지나가는 시간으로 받아들이는지 그게 아마 관건. 준거 점 일 거예요.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무슨 집단적인 사건 이런 건 대단히 관심 없지만 저는 체질적으로 어떤 객체 고통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한 그런 감각세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 사람에게 한 집단에게 고통을 가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는 어떠한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얌전한 사람인데, 분노를 많이 느끼고 이제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통에 대해서 민감한 세포를 우리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과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달라집니다. 과거를 여전히 지켜야 될 건지 아니면 과거를 폐기시켜서 우리가 필요한 좋은 이데올로기죠.

두 번 다시 저런 일이 있으면 안됩니다. 라고 하는 말. 좋은 말 이에요. 좋은 말인데. 잊혀진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죽은 사람들의 고통이 살아있다는 사실 그 억울함이 살아있다는 사실. 그걸 잊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옳습니까. 그름니까. 그렇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굉장히 그런 질문해야 될 것은 그렇게 과거 사실에 고통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은 체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아픔을 모르는 사람이 아픔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은 사람이 또 한 번 아픔이 오는 것에 대해서 공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당연히 없습니다. 당연히 없어요. 우리가 불을 만져서 뜨거우니까 불을 피하듯이 바로 불을 만져보지도 않으면서 불 나면 안 된다고 아무리 해봤지 소용없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볼 때 진정으로 그런 정치가들이나 아니면 역사주의자들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됩니다.

### ▲ 경험을 통한 텍스트 읽기

그 말 속에 들어가 있는 진정한 의미는 정말 그렇게 할래면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벤야민이 지적하는 바인데 죽은 사람들이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닌가 바로 그 사실은 벤야민이 여기서 애길 하고 있고 더 참담한 것은 벤야민이 얘기하듯이 그런데 적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승리하고 있다.

이 안에 얼마마한 그런 분노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절망이 들어가 있는지는 우리가 한 번 읽어보시면 감정 이입을 해서 한 번 읽어보시면 얼마나 참담한지 이렇게 쓰고 있는 벤야민이 쓰고 있는 벤야민의 심정이 아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바로 그 참담함이 바로 역사 테제 같은 걸 쓰게 만들고 그리고 평생의 그런 벤야민의 어떻게 보면 지적인 영웅주의인데 자기를 다 희생해가면서 전쟁이가 계속 되어가면서 역사를 등에 업고 다니려고 했던 어떻게 보면 영웅주의입니다. 영웅주의예요. 영웅주의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식인으로서의 태도가 어디서 유발되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장에서 읽어 낼 수가 있습니다.

참담함. 견딜 수 없는 뭐 이런 것들. 그것이 없는 바에 일찌감치 포기하겠죠. 뭐. 왜 그러고 살겠어요. 뭇 때문에. 오래는 데도 많고 그랬을텐데.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굉장히 그 민감할 때에 바로 이 테스트와의 어떤 그런 만남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읽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읽는 게 아니구요. 저는 강의를 하면서 자꾸 그런 부분들을 자꾸 상처 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아프게 만들면서. 그럴 때만 텍스트에는 글의 층이 아니고 벤야민이 얘기하는데 텍스트에는 두 층위가 있다.

하나를 표층층위가 있다. 읽어 내려가고 있는 글자로 쓰여진 층위가 있는데 그러나 두 번째 층위가 있다. 그건 바로 벤야민이 그걸 진리관계 층위라고 애길 하는데 사실관계 층위가 있고 우리 사실관계 층위는 읽으면 압니다. 그러나 진리관계 층위가 있다. 진리관계 층위는 바로 경험을 통해서만 온다. 경험을 통해서 온다. 경험에 경험에 그러나 경험에 전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 식으로 표현하자면 민감함 민감함. 그것과 그 안으로 민감하게 접근해 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지점들인데 그렇게 하면 이 텍스트 읽기가 얼마마한 에너지가 필요로 사실은 필요로 하는 것인가 이런 것도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 ▲ 멜랑콜리에 빠져있는 역사기술자

자 그래서 7번으로 이제 들어가서 잠깐 얘기를 하겠는데 7번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니까--- 역사가들이 앞에서 얘기했을 때 이 부분을 포인트 오브 타임 호바이 호슈 라는 획 지나가는 이 부분을 붙잡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만이 사실은 벤야민이 볼 때 역사 기술자인데 역사주의는 벤야민이 볼 때 깊은 멜랑콜리에 빠져있다. 이렇게 7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멜랑콜리에 빠져있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뭐냐 하면 이러한 붙잡을 수 없

는 어떠한 그러한 포인트를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한 결과로서 그걸 아예 포기해 버리는 식의 역사 기술 법. 그게 바로 역사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길 합니다.

이 부분을 깊이 들어가서 읽어야 된다. 하나씩 하나 씩 읽어 내려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제가 그냥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길 보게 되면 결국은 뭐냐 하면 역사주의자들이 쓰고 있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배사일 뿐이고 지배자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시간관 시간이고 따라서 쓰여 지는 시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 지배 계급들의 합리화 하는 역사에 지나지 않는다.

#### ▲ 남대문을 바라보는 역사관

그러면서도 바로 문화유산 문제를 얘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화유산이라고 부르는 그것도 사실은 사실은 문화유산이라고 보기에는 빼앗긴 문화유산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야 될 것들은 바로 문화유산을 찬탄 찬양하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전리품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누구로부터 빼앗은 물건이라는 사실. 다시 말하자면 그것들의 주인이 빼앗긴 자들이 따로 있다는 사실. 그걸 읽어내는 그러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문화유산이지 문화유산을 우리가 보호하고 남대문이 불탔습니다 만은 남대문을 바라보는 시선도 벤야민 식으로 바라보는 시선과 그 앞에서 남대문이 불탔다고 우는 사람도 있던데.

그런 시선으로 민족주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선과 우리가 분리하여 볼 필요가 있죠. 어 켜거나 벤야민이 만일 남대문 사건을 얘길 한다면 남대문 앞에서 통곡해야 되는 것은 그 남대문이 귀중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남대문이 없어지면 동시에 사라져버릴 어떤 기억 때문이다. 즉 고통 받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시켜주는 그게 없어진다는 그것 때문에 통곡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얘길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벤야민이 살아서 동아일보나 무슨 어디에 칼럼을 쓴다면 그런 제목을 쓴다면 남대문 앞에서 우리가 왜 통곡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칼럼을 쓰면. 바로 그런 식으로 써질 겁니다. 벤야민이 쓴다면 남대문은 사라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왜 그 앞에서 우린 땅을 치고 통곡해야 된다. 그러나 통곡해야 되는 의미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국보1호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 이조사의 어떤 번성했던 무엇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그 밑에 깔려있던 무엇. 그 깔려있던 무엇이 동시에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기억하게 할 어떤 매개 항이 없어지기 때문에 바로 통곡해야 된다는 식으로 칼럼을 쓰겠죠.

제가 볼 때는 벤야민의 역사관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남대문이 국보 1호가 우리에게서 사라졌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 일가라고 하는 점. 그런 것도 한 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 결을 거슬러서 역사를 술질하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줄 쭈 가면

야만의 기록이 없는 문화란 있을 수 없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한 번도 없다. 문화의 기록 자체가 야만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이 사람 손에서 저 사람 손으로 넘어가는 傳承의 과정 또한 이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유물론자는 가능한 한도 내에서 이러한 전승으로부터 비껴난다. 그는 결에 거슬러서 역사를 술질하는 것을 그의 과제로 삼는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유물론자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방정환 선생이 틀리셨어요. - 가능한 한도 내에서 이러한 전승으로부터 비껴간다. - 그래서 진정한 역사를 쓰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전승으로부터 비껴나는데 그 기준점이 뭐냐 하면 가능한 한도가 아니라 가능성이냐고 하는 것을 준거 점으로 삼아서 이러한 잘못된 전승으로부터 비껴난다. 그는 다시 말해 이 유명한 말이죠. -결을 거슬러서 역사를 빗질하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역사가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결을 역사가 쓰여 진 결을 거꾸로 이렇게 빗질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애길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벤야민은 역사 속에 역사 속에는 기록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기록된 역사는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결국 기록물을 뭐 그것이 뭐죠. 사관들이 쓴 역사에는 기록물이나 그걸 기록하는 기록물을 가지고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고 그걸 통해서 바로 과거사를 연구하는 것인데 벤야민이 문제 삼는 것은 누구나 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만은 기록 자체에 신빙성이 없다. 라는 얘기죠. 기록 자체가 이미 지배계급에 의해서 쓰여 진 거다.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 기록물 자체를 아무리 연구해 봤자 그 또 뭐니까. 바로 그 지배계급에 봉사하면서 그 지배 계급적인 기록을 또 한 번 반복하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 ▲ 잘못된 기록을 읽어내는 두 가지 독서법

벤야민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나 벤야민의 텍스트론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텍스트에는 사실 층위가 있고 진리 층위가 있다. 혹은 표현 층위가 있고 그리고 서술 층위가 있다고 애길 하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실 층위가 당연히 이거와 마찬가지로 잘못 돼 있어요. 잘못돼 있어요. 그러나 독서에는 두 가지가 있다. 독서라고 하는 것은 이 사실 층위를 그대로 재현해 내려는 독서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사실 층위를 읽어내면서 진리층위를 밖으로 드러내서 사실 층위를 폭파시키는 독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역사도 마찬가지다.

역사의 기록도 역사를 기록하는 읽은 사람이 바로 역사가인데 과연 이 기록물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게 문제죠. 역사주의자들은 항상 사실 층위를 항상 재반복하고 재생산하는 식으로만 얘기해 왔는데 사실 층위가 어차피 지배계급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라면 끊임없이 그

결과는 지배 계급들을 뺀다. 옹호하는 결과 밖에 안 갖고 있다.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안 읽을 건가. 벤야민은 이렇게 물어보죠. 안 읽으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층위도 우리가 알 수 없다.

그 층위도 그래서 읽어야 한다. 그런데 읽는다는 것이 무엇이나라고 질문 하는 거죠. 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읽는다는 것 그걸 바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떠한 가능성. 가능성. 즉 말하자면 아까 헤리오토로피즘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없지만 이 애깁니다. 지금은 없지만. 내가 발견하게 되면 있는 것. 또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없다면 내가 발견할수도 없는 어떠한 것. 이것 잘 이해가 가세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 우리가 발견해주지 않으면 그 안에 들어있지 않은 것. 그러나 그것이 들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것. 뭘니까. 무슨 애깁니까. 지금 이게 바로 벤야민 특유의 변증법적 사유인데요. 그겁니다.

바로 실제 부재 문제. 진리 층이라고 하는 것은 독서라고 하는 것은 이 잘못된 기록으로부터 어떤 가능성을 바로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꽃들이 향일성을 지니고 있듯이 역사의 향일성을 읽어내는 작업이지만. 그러나 그 향일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향일성이란 것을 찾으면서 읽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 것이다. 만약 동시에 동시에 만약 향일성이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 발견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애깁니다. 양자 관계라는 거죠. 양자관계. 이게 나중에 벤야민이 코레스펀던스correspondence라는 말로 애길 합니다. 부합한다 라는 말로 애길 하는 데요.

그러한 독서 법 이러한 독서 법이 이러한 관계를 따라서 우리가 잘못된 기록을 읽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 애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읽어야 하는 태도하구요. 두 번째는 결을 거슬러서 읽기 거꾸로 읽기 그래서 역사가가 역사적 사실을 읽는다는 이것. 사실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 라고 애길 해요. 하나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준거 점으로 해서 읽어내기 또 하나는 결을 거슬러서 읽기. 뒤집어서 읽기. 이 애기죠. 바로 그 애깁니다.

#### ▲ 진정한 비상사태로서의 혁명

자-- 이제 그 8번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요. 8번에 들어가면 비상사태 애길 하고 있습니다. 어 스테이트 오브 이멀전시A state of emergency 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비상사태다. "A state of emergency " 이렇게 애길 하죠. 비상사태. 벤야민이 이렇게 얘기해 그 소위 벤야민이 진단하고 있는 벤야민 시대 현 상태를 비상사태다. 라고 봤습니다. 비상사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애길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애길 하죠.

억눌린 자들의 전통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훈은 우리들이 오늘날 그 속에서 살고 있는 <비상사태>라는 것이 예외가 아니라 상례라는 점이다.

즉 역사가 늘 비상 사태였다 그 점에서 억눌린 자들이 억압 받고 있다는 사실이 비상사태를



의미한다면 비상사태는 오늘날만의 현상이 아니라 애시당초 처음부터 비상 사태였다. 라고 애길 하죠. 그렇게 애길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식의 상응하는 역사의 개념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진정한 비상사태를 도래 키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는 사실이 명약관화해질 것이고

다시 말하자면 그건 뭘 의미 하나 면 지정한 비상사태를 도래 시키는 것이 역사가의 임무이다. 어 튜루 스테이트 오브 이멀전시A true state of emergency라고 애길 합니다. 이 비상사태를 두 가지로 보고 있죠 현 상태가 비상사태다. 그런데 이 비상사태를 해결하려면 진짜 비상사태를 끌고 들어 와야 한다. 라고 애길 합니다. 이게 벤야민에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비상사태라는 말이 벤야민이 볼 때 현재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비상사태예요. 미 비상사태를 해결하려면 또 하나의 비상사태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하자면 혁명을 의미하고 있죠. 혁명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현상태로서 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배사가 지배계급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사실은 정당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비상 사태이고 그 비상사태를 폭파시키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비상사태 진정한 비상사태가 필요한데 그걸 다시 말하자면 소위 막스와 벤야민이 얘기하고 있는 바 혁명이라는비상사태다. 그래서 벤야민은 비상사태를 없애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비상사태가 필요하다 라고 애길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만 잘못된 비상사태와 그리고 진정한 비상 사태란 말로 나누어서 애길 하고 있죠. 바로 이 어떻게 잘못된 비상사태를 어떻게 하면 진정한 비상사태로 바꿀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9장에 들어가면 폴 클레의 그림을 저기 뭐냐 그림을 통해서부터 얘기되고 있는 소위 모던이라고 하는 현상항 대한 벤야민의 소위 근대성에 대한 인식과 그 다음에 시간성에 대한 인식이 본격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과거 이미지에 대해서 현상학적으로 아니면 그건 저기 인간학적으로 아니면 그 본질적으로 그 문제를 과거 이미지라는 걸 얘기한다면 이제는 바로 이미지와 다른 이미지와 시간의 관계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시간의 문제를 애길 하고 있습니다. 9장부터.